# 社 說

## 국민에게 신뢰받는 떳떳한 정부수립이 과제

### —92년도 국정감사를 보고나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92년도 국정감사(國政監査)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가려움증'만 더해주고 말았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 대의(代議)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정부의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올 한해동안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정부 각 부처에서 어떻게 알차고 내실있게 사용하였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따져보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전례없는 국정감사 방해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 고유권한이 엄청난 침해를 당했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서울시의회 민자당 의원들의 방해로 우여곡절끝에 예정시간보다 무려 5시간 동안 지연되었다.

이번 서울시에 대한 파행적인 국정감사는 전례없는 일로 특히 민자당 시 의원들이 국정감사 거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사실상 노골적인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벌인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대의정치의 최상위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산 지방환경청을 감사하기 하루전에 수감기관 간부들과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감사를 하루앞두고 술판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리 사사로운 술판이라도 국정감사를 임하는 의원들로서는 도리가 아니다.

16일 있었던 부산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부분 업무진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잠음'을 일으키며 시작한 이번 국정감사는 하루하루 그 뚜껑을 열수록 '표절적인 비리(非理)와 '증폭되는 의혹(疑惑)'만이 난무할 뿐 무엇하나 제대로 속시원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인할수 있었을 것이다.

정권교체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실시한 이번 국정감사를 자세보면서 언제쯤에나 국민들의 세금을 실속있고 알차게 사용하였음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부를 만들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가 없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대통령선거의 분위기는 고조되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어놓는 궤변(詭辯) 일뿐이다. 또한 일반 기성언론매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자리다툼을 마치 정치의 전부인양 떠들아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약하거나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아랍했던 일제(日帝)의 황국식민화(皇國植民化) 정책에도 일부 친일파와 매국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끄떡하지 않고 견디어 냈으며 지금도 미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침투도 힘겹지만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9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권교체의 역사적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단결'로 이룬 공정방송 주춧돌

### —MBC 파업타결을 보며

지난달 29일 높은 지지율 속에 시작됐던 MBC 노조의 파업타결은 오랜만에 시원스런 소식을 전해주었다.

장장 50여일이라는 긴 시간 끝에 노사간의 타협으로 마무리된 이번 파업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은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에 그 말발굽을 다져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침체된 언론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정보도운동에도 커다란 활력이 되기 때문이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각 신문사가다 노조가 탄생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90년에 KBS의 방송민주화운동이 공권력에 의해 무산된 후, 각 언론사의 노조활동은 눈에 띄게 축소되어졌다. 오히려, 5공때와는 다르게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조종하는 집권세력앞에서 이용당하기 일쑤였다. 다만 TV시청료 거부운동의 80년대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시민단체들의 언론감시운동이 그나마 신문과 방송에 대한 유일한 비판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때, MBC의 이번 합의는 비록 MBC 한개사이지만 큰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6공화국의 언론에 대한 '당근과 채찍'사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김영삼 총재취임식 생방송', 'YS 언론장학생'등의 사건은 실제로 언론조종을 위해 아직도 정치권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 MBC 파업기간동안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지만 각 일간지마다 파업에 대해 그렇게도 에써무관심했던 것에서도 '공정'과는 먼 언론의 현실을 볼수 있었다. 50여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라가 떠들썩 했고 파행방송에다 심지어 방송국에 공권력까지 투입되었는데도 신문 한귀퉁이에서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현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물론, 외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MBC 공권력 투입후 KBS와 기독교방송의 동조파업결의와 연대를 위한 노력은 많은 귀감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각계 대표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이 고민했던것과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격려와 찬사는 무엇보다 큰 힘이었다.

이제 다시 방송국의 기계앞에, 카메라 앞에선 MBC노조원들은 이번 합의가 결코 우연이거나, 행운이 아니라 공정보도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떳떳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공정보도를 위해 넘어야 할 벽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통해 국민이 외면하는 방송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더불어 이번의 성과가 다른 언론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TV토론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지는 이때,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두눈을 부릅뜨고 신문과 TV를 바라보아야 할것이다.

## 면체비평

## '독자란' 올바른 자리매김 필요

신문은 독자에게 여러 사실을 전달해주는 보도역할과 함께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시키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국민의 의사표출 욕구가 점점 높아짐수록 신문의 여론형성 역할 또한 다른 시기보다 중대해진다 하겠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 각 신문에는 나름대로 독자들만의 지면이 설정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독자의견 여론광장', 중앙일보의 '독자의 광장', 한국일보의 '독자들의 토론광장', 경향신문의 '독자의 소리'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저마다 '독자'를 강조한 이 여론란은 자칫 잘못 이용되어 커다란 우를 범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각 신문사는 여론란에 해당 신문논점에 맞는 독자의 글만을 담아 국민으로 하여금 그 논점만을 전부하고 정당화 시킬수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논점을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독자의견 여론광장'을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난다.

10월 3일자 '독자의견 여론광장'에는 '정권교체기 광배 집단행동 삼가길'이라는 부제 아래 파월용사들의 고엽제 피해보상 요구와 서울택시노련 파업을 사회혼란상으로 규정짓고 '국민모두가 정치 변혁기 일수록 사사로운 불만은 자제하길 당부한다'는 내용의 글이 독자의견란에 실림으로해서 민중의 생존권부쟁이 불필요한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해버린 결과를 낳았다.

10월 12일자에서는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씨 사형선고에 부쳐 '사상노예된 청년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글이 실렸다. 여기서 필자는 '젊은이들이 낡고 허망된 이념에 매달려 있다'라며 기성세대가 이러한 것들로 부터 젊은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6일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발표가 있은 후에는 하루에 한번꼴로 똑같은 독자글을 찾을 수 있다.

8월자에 실린 '대형간첩단 검거 대북태도 불안감'을 비롯해 '정치권 간첩침투현실 똑바로 보자'(9일자) '간첩침투 무대책 우리모두 자성을'(12일자) '구멍난 대공의식 정당도 책임있다'(13일자) 등은 북한 정부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더불어 이번사건을 계기로 국민모두가 대북경계심을 새롭게 다져나가자는 의견만이 이사건의 핵심인양 여론란에 장식됐다.

심지어 이미 그 존립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국가보안법의 입존과 안기부 등 대공수사기관의 강화를 바라는 내용의 글도 실려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일련적이지 않음만에 하나의 시각으로 쓰여진 글만을 연재한 것은 여론형성의 과정인 독자토론의 장을 신문 스스로가 막아버린건 아닐까?

여론란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 실린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여론란에서의 편파적·일률적 보도태도는 그것이 국민모두의 목소리로 잘못 인식되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사고에 지배이데올로기를 침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자가 쓴 글을 싣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식의 책임회피는 진정한 여론을 창출해야할 신문의 올바른 의무를 망각한 태도이다.

그 신문의 논점만으로 집필된 것이 아닌 여러 계층의 독자가 여러 각도의 시각에서 바라본 글을 모아 올바른 가치판단속에서 여론란을 메꾸어 나갈때만이 진정 여론형성의 역할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신문이라 할 것이다.

〈안성모 記者〉

## 대선정국의 예고된 손님

### —'남한조선 노동당 사건' 안기부 발표를 보며

사론

해방정국 남로당 사건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 불리는 '남한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사건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

북한 권력서열 22위인 이선실의 대남공작이나 김낙중 민중당전(前)대표의 관련 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의 몇차례 발표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당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이전에 터져 나오는 심정적 의혹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 87년 대선 직전 KAL기 폭파사건의 점점한 기억이 겹쳐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당시 노태우 후보를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KAL기 사건의 의혹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터진 노동당 사건을 국민들이 과연 순진하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안기부가 낚은 대어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은 KAL기 사건만큼이나 미묘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노동당 사건은 적어도 안기부발표 몇개월 이전에 이미 그림포가 작성된 사건이었다. 안기부의 주장처럼 조직원의 자백에 의한 그림포가 불과 몇일만에 완성된건 간 삼식이하의 논리다.

그렇다면 이 시건은 진위여부를 떠나 지금까지의 정권들이 그들의 위기때마다 빙파제로 내세운 간첩단 사건, 그 이상의 외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시기적 의혹은 12월 대선시기에 맞춰진 안기부의 작품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안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발표때 기자들에게 "안기부의 대공수사능력을 비관해 달라"는 야릇한 주문을 했다. 애초 엠바고(사건은 발표하되 기사는 유보시키는 것)가 걸렸던 노동당 사건을 각 언론이 돔시에 발표하면서 '안기부의 대공수사 능력 미비'라고 덧붙인다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을까?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태에서, 안기부의 축소론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여론향방은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차 공격과 스스로의 비판(?)을 통해 안기부는 더욱 강화된 위상과 확고한 입지를 얻고자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으로 떠오른 것은 북한 권력서열 22위인 이선실의 존재유무다.

최대의 간첩단사건의 명칭에 부끄러움 정도로 북한 직파 간첩을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채 그들에 의해 포섭됐다는 활동가만을 모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몇년전에 이선실과 재야인사·재야단체가 나눈 얘기는 속속들이 일련적 진짜 간첩(?)을 놓친 이유는 무엇인가?

이쯤되면 결론은 두가지다. 직파 간첩을 일부러 놓아 주었거나, 처음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거나.

적어도 수개월전부터 노동당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던 안기부가 사건 명칭을 몇차례 수정했던 대목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처음 안기부 발표에서는 사건 명칭이 '남부지역당'이었다. 그후 '중부지역당'으로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남한 조선노동당'으로 변했다.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수십종의 보도자료 책자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치밀했던 안기부가 명칭의 중요함을 돌라서 개칭을 수차례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명칭·활동내역등 사건발표 일관성없어 반공이데올기조성으로 안기부강화 노린듯

명칭만큼이나 조직원의 숫자, 활동내역도 의문 사항이다. 중간발표에서 조차도 조직원 숫자를 1백여명의 오차가 생기게끔 발표했다. 심지어 활동내역을 파악못해 '예비소조'니 '비서팀'이나 하는 직책까지 만들어 인원을 채워 나갔다. 무엇이 그리도 안기부를 바쁘게 했는가?

사건의 파장이 커 꼼꼼하게 짚어보지 못한 채 충격으로 다가온 노동당 사건을 거꾸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당 사건 발표 중간중간에 끼워든 재야인사·단체와 야당관련설을 기억할 것이다.

처음 발표때 김낙중씨가 등장했고, 이후 장기표씨가 큰 혐의없이-불고지죄-구속됐고,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개인비서 이근희씨-비밀문서조차 아년 자료때문에 연루의 구속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외해 뿐만 아니라 야당의 국민에 대한 신뢰 또한 변질시킨다. 이후 박광길 민가협 전(前)의장이 사건이 연루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등장한 재야인사들의 관련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민족민주운동세력일 것이다. 거의 구체적 혐의없이 연행, 구속된 사람들인데도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인해 마치 재야 모두가 불순세력인양 빨간 칠을 당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근거없는 '야당 국회의원 관련설'과 북한 지령 압호문 내용이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내용이었다는 발표다. 일련의 재야·야당 흠집내기 시간차공격은 국민들로부터 민족민주운동세력과의 거리를 두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대선을 불과 두달여 남긴 시점에서.

사건 관련자에게 변호인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안기부는 "간첩에게 인권이 무엇때문에 필요하냐"고 강변했다. 또한 "북한에서 전국연합을 건설하라면 전국연합이 건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과 최소한의 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 노동당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심지어 '안기부의 조작설', '이선실은 이중스파이'라는 얘기까지 떠도는 것은 왜 일까? 그동안 안기부와 정권측에게 날조했던 간첩단사건이 남겨준 당연할 결과다.

안기부의 노동당 사건 발표과정을 지켜보면서 쉽게 납득하려 하지 않는 국민적 정서는 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 것이다. 반통일적 작태와 선거 여론조작을 위해 과대포장된 간첩단 사건이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짓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하기 보다는 같은 민족으로서 화합하고 포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 한 기

〈민족민주언론협의회 간사〉

고 황 만 평

'50일, 아! 공정방송'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유춘근 : 삼성전자 비디오사업본부 주임연구원 ●한택수 : 삼성전자 비디오사업본부 주임연구원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안상준군이 삼성전자 비디오사업본부 연구실을 찾아가 최근 개발된 순간영상인화기(CVP)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2년간의 노력과 집념으로 20초를 당겨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코닥社의 한마디 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TV 모니터를 통해 보여지는 화면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화해여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순간영상인화기 — 연구소, 병원, 방송국, 경찰서, 은행등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제품, 낯선 기술이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그 인화시간의 단축을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상태라고 한다.

"우리 제품이 나오기 전만해도 일본의 67초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 45초만에 화면을 사진으로 인화해냄으로 세계 최고가 역전된 셈이죠.

코닥社에서도 우리 제품의 인화시간, 가격등을 비교해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개발의 순간을 떠올리는 두 삼성인의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떠올랐다.

"더우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순간영상인화기 부품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품, 기술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두뇌와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개발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 셈이죠.

마치 우리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최고가 된다는 것에 당당하 흥분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두번째 또는 기술제휴라는 것에 익숙해져있던 탓일까.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분이 계시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또 45초를 당기기 위해 밤을 하얗게 새워가며 연구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기술도 올라선 정상, 우리의 기술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뭣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정상 —

그 정상위에서 또 다른 정상을 내다보는 삼성인에게서 우리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선 정상이기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 섞인 기대와 함께.

●안상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삼성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